

"37초간 살릴 수 있었다, 기업살인자 박순관 구속" 아리셀 유족들 수원법원 철야농성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8.26 18:22

아리셀 참사 유족들, 박순관 구속 촉구 2박3일 긴급행동 돌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이 일부 드러나며 한국사회를 경악에 빠뜨린 가운데, 유족들이 오늘(26일)부터 2박3일간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의 즉각 구속을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유족들은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다.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대책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살인자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구속 촉구 및 유가족 긴급 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참사 합동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들이 ID카드 발급 및 지문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 모두를 살리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 37초를 놓쳤다는 점 등을 발표했다. 또한 군납을 위한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하며 품질검사를 조작했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미숙련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동원해 공정을 강행한 사실 등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 가까이 되던 시점이다.

이들은 박순관 구속을 염원하는 유가족 자필 탄원서와 25일까지 취합된 온라인 서명지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평일 오후 7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진행되던 '시민추모제'의 경우 26일~28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오후 6시로 옮겨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추모제'를 마친 희생자 가족은 몸이 불편한 일부 가족을 제외하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책위는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이익 앞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주저할 것도 없었던 에스코넥·아리셀의 탐욕과 국방부의 무능, 부실, 무책임이 더해져 발생한 '기업 살인'과 '국가 살인'이 원인이라는 점"이라며 분노했다.

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한 공은 수원지방법원과

영장판사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박순관이 구속되지 않으면 그는 끊임없이 참사의 증거와 정황을 조작, 인멸하고 희생자 유족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오직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해 지금까지 끝없는 '회유와 협박'에 나설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는 참사의 진상이 더욱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인자 박순관과 그 일당에 대해 법원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더 이상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진실을 가릴 수 없도록 구속해야 한다. 이것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살인자 에스코백·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구속 촉구 및 유가족 긴급 행동 돌입 기자회견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